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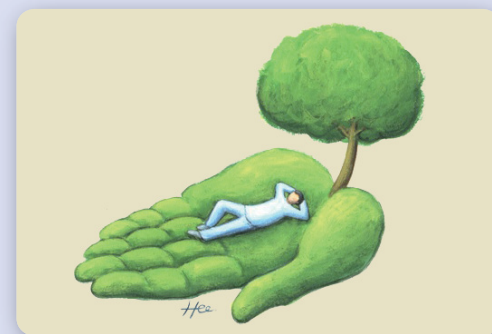
뜻도 모르고 읽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요. 비몽사몽 바치는 염경기도나 집중하지 못하는 미사참여도 효과가 있는지요? 모두 그분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지요.

잠결에 기도를 바쳐도 효험이 있을지, 졸면서라도 미사에 참여하는 편이 나은 것인지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또 성경만 거꾸 읽어도 대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를 딱하게 여기신 듯합니다 (예리하고 정확한 형제님께 두루뭉술한 제 답이 군더더기로 여겨지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의 바람은 늘 깨어 기도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더해서 읽으면 '척'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제일 원하는 일이니 두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허술한 인간들은 '입으로만' 기도하고, '눈으로만' 성경을 훑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딱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거꾸, 연달아, 성경을 읽도록 해 주신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시, 거듭, 새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걸 기억하면 어떨까요? 성경읽기는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느끼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능력으로 판별되지 않습니다. 더디어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소중한 이유입니다. 뜻을 몰라도, 깜빡 졸더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의 행위라면 모두 믿음이며 희망이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진한다면 모두 완덕을 향해 나가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

(시편 63,2-9)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58번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 주님! 목말라 애타게 당신을 찾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63편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63, 2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 3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 4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 5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오리다.
- 6 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 7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 8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 9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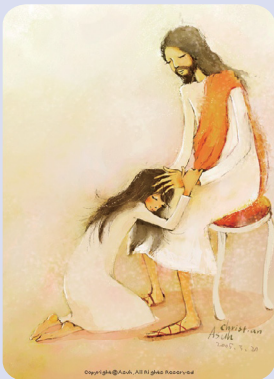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애타게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채울수록 텅비어 가니, 많은 것을 움켜쥐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 잡히면서 오히려 실망과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다.”

20세기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의 고백입니다. 그는 한때 밤새 술을 마시며 궤변을 즐기고, 온갖 쾌락과 열정을 누리려고 세상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오만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인생의 고뇌와 혼란 속에서 머튼이 마침내 받아들인 가톨릭 신앙과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환희를 안겨 줍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세상에서 이토록 놀라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비참하고 소란스럽고 잔혹한 이 지상에, 침묵과 고독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로버트 엘스버그,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

파스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느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인간은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시편 34,9)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시편 16,2)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58번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2,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따뜻한 주님의 날개 밑에 모인 우리들 |

- 안의선교 본당 2구역 2반 반장 최명자 아네스 -

안의선교본당은 거창에 위치한 위천성당과 함양에 위치한 안의성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천성당은 90여 년 전 경분이 말셀라 자매가 자신의 집에서 주일 예절을 드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전교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후 위천공소가 설립되었고, 9년 전에는 안의공소와 함께 안의선교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소공동체는 안의성당 1구역과 위천성당 2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임신부님께서 각 반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해 주시고 사목의 많은 부분을 소공동체에서 협력하도록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2구역 2반은 거창군 위천면의 삼천리와 감천리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분이 말셀라 자매가 첫 번째 영세자를 하느님께 봉헌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자 수가 많지만 연로하신 분이 많아 반모임에는 9명~1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시력과 청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복음 나누기를 대신하여 다함께 묵주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매월 첫째 주 교중미사 후에는 '우정의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저희 반도 차례가 되면 한몫을 합니다. 다른 반 교우들이 어르신들의 수고가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묵주기도와 부엌일은 자신 있다며 손발을 걷어붙칩니다. 어떤 분은 식사 나눔에 스스로 지은 농산물을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또 어느 반원은 소리 없이 노인들을 보살핍니다. 장례가 나면 본당 연령회와 협력하여 밤낮으로 고인의 빈소를 지키며 기도하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여 줍니다.

공소 시절에 쉽게 세례를 받은 탓인지 냉담한 교우가 많고, 가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도시에 사는 이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에 살던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지만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 이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반원 모두는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90년 전 이곳에 경분이 말셀라 자매를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이 마을을 기억하시어 어미 닭이 병아리를 불러 모으듯 냉담 교우와 젊은이들을 불러주시어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아멘.

